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I)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1) 20점 문제 1-(2) 20점 문제 2 30점 문제 3 30점
3.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 안에 작성합니다(문제 1은 (1)과 (2)를 한 칸에 이어 씁니다).
4. 분량을 따로 셀 때에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이화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네 문항을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周)나라 여왕(厲王)이 포악하게 다스리자 나라 사람들이 왕을 비방하였다. 소공(召公)이 왕에게 아뢰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은 노하여 위(衛)나라의 무당을 데려와 비방하는 자들을 감시하게 하고, 무당이 고하는 자는 곧바로 죽였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눈짓으로만 뜻을 주고받았다. 왕은 기뻐하며 소공에게 말하였다. "내가 비방을 그치게 하였소. 이제는 감히 말하는 자가 없소."

소공이 말하였다. "이는 말을 막아 둔 것일 뿐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냇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다치는데, 백성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물길을 터서 흐르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들이 마음껏 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정사를 들을 때에는 공경(公卿)에서 선비에 이르기까지 시를 지어 바치게 하고, 악사는 노래를 바치고, 사관은 기록을 바치고, 스승은 잘못을 일깨우는 글을 올리고, 앞 못 보는 악사들은 시를 읊고 외우고, 온갖 장인은 간언하고, 서민은 떠도는 말을 전하고, 가까운 신하는 바로잡을 계책을 다 아뢰고, 왕의 친척은 허물을 메우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악사와 사관이 가르치고 원로들이 이를 다듬은 뒤에야 왕이 헤아려 시행하였으니, 이 때문에 일이 행해져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입이 있는 것은 땅에 산과 내가 있는 것과 같아서 재물과 쓰임이 거기에서 나오고, 땅에 넓고 기름진 들판이 있는 것과 같아서 입고 먹을 것이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백성이 입을 열어 말하면 정치의 잘잘못이 드러나니, 백성이 좋다고 하는 일은 행하고 나쁘다고 하는 일은 대비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늘리고 입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는 길입니다. 백성은 마음속으로 헤아린 것을 입으로 드러내고, 생각이 무르익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법인데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입을 막는다면 그 다스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나라 사람들은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는데, 삼 년이 지나자 마침내 왕을 체(彘) 땅으로 내쫓았다.

* 여왕(厲王): 주나라 왕. 여(厲)는 시호로, 여성 왕이 아니다. 공경(公卿):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 체(彘): 옛 진(晉)나라 지역의 땅 이름.

[나] Let us suppose, therefore, that the government is entirely at one with the people, and never thinks of exerting any power of coercion unless in agreement with what it conceives to be their voice. But I deny the right of the people to exercise such coercion, either by themselves or by their government. The power itself is illegitimate. The best government has no more title to it than the worst. It is as noxious, or more noxious, when exerted in accordance with public opinion, than when in opposition to it. If all mankind minus one, were of one opinion, and only one person were of the contrary opinion, mankind would be no more justified in silencing that one person, than he, if he had the power, would be justified in silencing mankind. Were an opinion a personal possession of no value except to the owner; if to be obstructed in the enjoyment of it were simply a private injury, it would make some difference whether the injury was inflicted only on a few persons or on many. But the peculiar evil of silencing the expression of an opinion is, that it is robbing the human race; posterity as well as the existing generation; those who dissent from the opinion, still more than those who hold it. If the opinion is right, they ar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of exchanging error for truth: if wrong, they lose, what is almost as great a benefit, the clearer perception and livelier impression of truth, produced by its collision with error.

First: the opinion which it is attempted to suppress by authority may possibly be true. (중략) To refuse a hearing to an opinion, because they are sure that it is false, is to assume that their certainty is the same thing as absolute certainty. All silencing of discussion is an assumption of infallibility.

* coercion: 강제, noxious: 해로운, posterity: 후손, dissent: 의견을 달리하다, infallibility: 무오류성

[다]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고 보았다. 맹자는 이러한 덕치의 정신을 이어받아 왕도(王道) 정치를 주장하고, 힘에 기대어 천하를 차지하려는 당시 제후들의 패도(覇道)를 비판하였다. 맹

자에 따르면 힘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이니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져야 하지만, 덕으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자이니 왕자는 큰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다. 패도는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는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는 것이며,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힘에 눌린 복종은 겉으로 드러난 순종일 뿐이어서, 힘의 형세가 바뀌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백성을 정치의 근본으로 보았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모아 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면 백성이 어진 정치로 돌아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나아가 맹자는 인과 의를 해치는 군주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 한 사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친 일을 두고, 한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라] 예술은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술 작품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는가? 여러 사상가가 이 문제를 고민했다.

플라톤은 예술을 모방으로 보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참된 실재는 감각을 넘어선 이데아이고, 우리가 보는 개별 사물은 이데아를 본뜬 것이다. 그런데 화가가 그린 침대는 목수가 만든 침대를 다시 본뜬 것이므로, 진리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 놓이는 모방의 모방에 불과하다. 더구나 시인과 화가는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는 감정적 부분에 호소하므로, 플라톤은 이들이 이상 국가의 시민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플라톤에게 예술 작품의 가치는 그것이 진리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영혼을 얼마나 바르게 이끄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았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방을 통해 배우며, 모방된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특히 비극은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그러한 감정을 정화하는 카타르시스를 일으킨다. 또한 시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역사와 달리 일어날 법한 일을 말하므로,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예술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보여 주는 활동이었다.

톨스토이는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예술의 기준으로 삼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하면 예술은 결국 소수의 사람이 누리는 쾌락에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한 사람이 자신이 체험한 감정을 선, 색채, 소리, 말로 표현된 형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같은 감정에 감염되게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작품이 감상자를 작가와, 그리고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로 묶어 줄 때 그것은 참된 예술이 된다. 감정의 전염이 강할수록 예술의 가치는 높으며, 그 정도는 전달되는 감정이 얼마나 독특한지, 얼마나 명료하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작가가 그 감정을 얼마나 진실하게 느끼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톨스토이는 이 가운데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소수만 즐기는 작품보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작가가 스스로 느끼지 않은 감정을 꾸며 내거나, 남의 작품을 빌려 오거나, 대상을 세밀하게 베껴 내거나, 감각을 자극하는 효과만 노린 작품은 예술의 모조품이라고 보았다.

[마]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미술관에 걸린 그림과 길가 간판의 그림은 모두 물감으로 그린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만을 예술이라 부르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는 예술 정의 이론이 여럿 있다.

먼저 모방론은 예술을 현실의 대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을 얼마나 실물에 가깝게 재현했느냐가 작품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모방론은 예술을 자연을 비추는 거울로 여긴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양에서 오랫동안 예술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되었다. 그러나 모방론으로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음악이나 추상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표현론은 예술을 작가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정서를 겉으로 드러낸 것으로 본다. 표현론에 따르면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온전히 드러냈다면 그것은 예술 작품이다. 예를 들어 깊은 슬픔을 겪은 작곡가가 그 슬픔을 선율에 담아냈다면, 그 곡은 작곡가의 감정을 표현한 예술 작품이 된다. 그러나 작가의 내면을 감상자가 확인할 길이 없고,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서 모두 예술이라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형식론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감정이 아니라 선, 색, 소리 같은 요소들이 배열되어 이루는 형식에 주목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특별한 관계로 결합하여 감상자에게 독특한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때 그것이 예술이라는 것이다. 형식론자들은 그림이 무엇을 그렸는지보다

그 형식이 주는 감동을 알아보는 것이 예술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형식론에 따르면 한 폭의 그림이 사과를 그렸든 산을 그렸든, 예술로서의 가치는 그 안의 선과 색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형식론은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나 그것이 놓인 사회적 맥락을 지나치게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진다. 개인적 관점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 노력 부족, 잘못된 태도 등 개인의 특성에서 찾는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를 겪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된다. 반면 구조적 관점은 사회 문제가 경제 체제, 노동 시장,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의 수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수보다 크게 적다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이때 실업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구조가 낳은 결과이므로, 해결책 역시 구조를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한다. 두 관점은 같은 현상을 두고도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개인적 관점은 '왜 저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는가'를 묻는 반면, 구조적 관점은 '왜 이 사회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를 묻는다.

개인적 관점이 지나치면 '피해자 비난'에 이르기도 한다. 피해자 비난이란 사회 구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결함을 찾아내고, 그 결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을 널리 알린 사회학자 라이언은 가난한 지역 아이들의 낮은 학업 성취를 예로 들었다. 낡은 학교와 부족한 교육 여건 대신 아이들의 가정에 책과 대화가 모자란다는 '문화적 결핍'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부모와 아이의 습관을 고치는 프로그램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를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결함을 찾아내고, 그 결함을 고치는 일을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피해자의 태도나 의지를 바꾸라는 충고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그 결과 구조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지고, 그 구조 덕분에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사] "뭐 어디 빈자리가 있어야지."

K사장은 안락의자에 푹신 파묻힌 몸을 뒤로 벌—떡 젖히며 하품을 하듯이 시원찮게 대답을 한다. 미상불 그는 두 팔을 쭉— 내뻗고 기지개라도 한 번 쓰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눈치다.

(중략)

"결원이 그렇게 나나 어데…… 그러고 간혹가다가 결원이 난다더래도 유력한 후보자가 몇십 명씩 밀려 있어서……."

P는 아무 말도 아니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영영 틀어진 것이다. (중략)

"거 참 큰일들 났어."

K사장은 P가 낙심해하는 것을 보고 별로 밑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누어 준다.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들 애를 쓰니."

P는 속으로 코똥을 '흥' 하고 뀌었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였다. K사장은 P가 이미 더 조르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한지라 먼저 하품 섞어 '빈자리가 있어야지' 하던 시원찮은 태도는 버리고 그가 늘 흉중에 묻어 두었다가 청년들에게 한바탕씩 해 들려 주는 훈화를 꺼낸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무얼 합니까?"

P는 말 중동을 갈라 불쑥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운동은 글러진 것이니 속시원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허!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 인구의 팔 할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다구?"

"저는 그 말씀 잘 못 알어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잖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가령 응…… 저……."

K사장은 응…… 저…… 하고 더듬으면서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가 구직하러 오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음에 또 꺼내는 일거리를 만들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었다. 그저 지식 계급의 구직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연히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고 해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행셋거리로, 또 한편으로는 구직꾼 격퇴의 수단으로 자룡이 헌 창 쓰듯 썼을 뿐이지.

(중략)

"가령 응…… 저…… 문맹퇴치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 할은 언문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개선운동도 좋고……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 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무얼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 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허! 그게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P는 K사장이 억담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그레니 웃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퇴치니 생활개선이니 합네 하고 손끝이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릿살을 앓을 것입니다…… 농민이 우매하다든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의 근본원인이 기역 니은을 모른다든가 생활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중략)

"정 농촌으로 돌아가기가 싫거든 서울서라도 몇 사람 맘 맞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조선에 신문이 모자라니 신문을 하나 경영하든지 또 조그맣게 하자면 잡지 같은 것도 좋고 또 영리사업도 좋고…… 그러면 취직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졸 줄이야 압니다만 누가 돈을 내놉니까?"

"그거야 성의 있게 하면 자연 돈도 생기는 거지."

(중략)

"어제 아침에 사장더러 P군의 사정이 퍽 난처하니 어떻게 생각해 봐 주면 좋겠다고 여러 말을 했다가 코떼었소.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닌데 남의 사정 난처한 것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그럽디다……."

* 미상불(未嘗不): 아닌 게 아니라 과연. 행셋거리: 행세(체면을 차림)할 거리. 자룡이 헌 창 쓰듯: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모양. 코떼다: 무안을 당하다.

1. (1)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여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제시문 [가]의 입장과, 의견의 억압을 반대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맹자가 패도를 비판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여왕의 통치를 비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톨스토이의 관점에서 [마]의 예술 정의 이론들을 평가하시오. [30점]

3. 제시문 [바]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사]의 'K사장의 훈화'를 비판하시오. [30점]

〈끝〉